

# 화순 '의료 연계형 치유 숲' 조성

### 올해 산림사업 303억원 투입 의료서비스 연계 관광 활성화 산림치유·휴양레저시설 확충

화순군이 관내 숲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활용한 전국 최초 '의료연계형 치유 숲'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그간 산림 자원 육성과 산림복지 기반 조성에 매진해 왔다. 이중 만연산 치유의 숲은 지난해 월 평균 2만6,000명 이상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오감연결길, 치유 숲길, 치유의 숲 센터, 숲속 체험장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을 통해 산림치유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화순군은 올해 20여 개 산림사업에 303억원을 투입해 '힐링 화순' 이미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 최초 '의료연계형 국립 치유의 숲'을 조성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확보한 국비 50억원을 투입, 화순전남대병원 등 첨단 의료서비스와 산림자원을 연계한 산



화순군이 전국 최초 의료연계형 치유 숲 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만연산 치유의 숲을 찾은 등산객들. /화순군 제공

림복지 숲을 조성한다. 군은 산림복지 서비스와 의료관광이 시너지 효과를 내 관광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 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한다. 90억원을 들여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 인근 약 10ha 부지에 고인돌정원을 조성한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실시

계획을 추진한다. 또 군은 천운산 산림레포츠 단지와 화순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에도 시동을 건다.

천운산 일대에 복합 산림레포츠단지(총사업비 120억)와 공립수목원(총사업비 180억)을 2022년까지 만든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자연휴양림-수목원-레포츠 단지'를 연계해

산림휴양·치유 기능과 함께 즐길 거리를 제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반 확충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산림자원과 의료·문화유산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화순만의 산림복지 모델을 만들어 '힐링 화순'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서호령 기자

## "결사항전 자세로 강력 투쟁 할 것"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대책위 발대식

광주군공항 이전 유력후보지 중 하나인 무안군에서 지역민들의 이전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군공항 무안이전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무안군은 국제공항 활성화, 호남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면서 "전투비행장 이전 논의와 관련해 군의 미래를 담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전투비행장 이전에 수차례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혔으나 철저히 무시되고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과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지방의원, 읍·면 번영회장,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상임공동위원장 등 8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교육·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중국 상임공동위원장은 "군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군을 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로 건설했다"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주민들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 위원장은 이어 "에시당초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광주-전남 상생발전 안전이 될 수 없음에도 성과와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안군을 무시한 태도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안군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군의회는 물론 민간단체 등에서도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망운면을 시작으로 모든 9개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한 '군공항 반대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 나주마한문화축제 10월에 열린다

###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서...주차공간 확대 등 편의 개선

전남도 대표축제분야 '유망축제'에 선정된 나주마한문화축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3일간 국립나주박물관 일대에서 열린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마한문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제5회 나주마한문화축제 개최 날을 오는 10월 11일로 확정했다.

또 추진위는 관광객 편의 개선을 위

한 주차공간 확대를 비롯해 생태 꽃단지 조성, 먹거리 부스 확충,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안했다.

역대 최다인 관광객 수 16만5,000여 명을 기록한 제4회 나주마한문화축제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기념행사, 문화 체험부스, 전시·홍보전 등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나주마한문화축제는 1~4세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마한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축제다.

마한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경연, 먹거리, 전통 의식 재현 등 색다른 축제 콘텐츠를 통해 지역 대표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망축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염규동 기자

## 영광모깃잎송편 브랜드 대상 재배 육성 등 자립기반 호평

영광군은 '영광모깃잎송편'이 '2019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지역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 선정 브랜드대상은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신뢰도, 브랜드 경영의 혁신적 사례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소비자 온라인 투표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선정된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영광모깃잎송편 명품화를 추진, 옥당모시 품종을 개발했고, 기존 수입산 동부 품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옥당동부를 공동개발했다. 또 재배단지를 육성, 자립기반을 구축해온 점이 선정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표시 제104호에 등록되었던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준성 군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승훈 기자



장흥군은 최근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흥군 제공

## 장흥 축산단체 간담회 개최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논의

장흥군은 최근 지역 축산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산단체협의회 안금수 회장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7개 축산 관련 단체장 및 사무국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과 올해 축산사업 등 축산업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과제였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방안, 사업규모, 사업단 구성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군은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주요 군정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장흥진 장흥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1일에는 지역 다문화 여성을 만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일에는 공모연수 중인 공직 선배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종순 군수는 "축산업은 군민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라며 "더욱 건실한 축산농가를 육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임채문 한농연 함평군연합회장 취임

임채문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은 최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윤행 군수,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지역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회장

단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함평농업 발전을 위해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선도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며 "농업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회원들과 함께 발 벗고 나서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이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농연이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임 신임회장은 한농연 함평군학 교면회장, 학교면 번영회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현재는 학교면에서 복합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장흥 보림회원 의무경찰 위문

장흥군의회 위문 의장은 보림회 회원들과 최근 지역의 치안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해온 장흥경찰서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보림회 회원들은 매년 군장병들과 경찰서 의무경찰들을 대상으로 사랑이 가득 담긴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위 의장은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며 "올해도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담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한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16개 목표, 53개 세부목표, 66개지표로 구성된 담양군 SDGs 2030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을 위한 선정과정을 안내하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담양=장동원 기자



### 함평 제5기 도시재생대학 수료

함평군은 최근 함평읍 도시재생센터 회의실에서 제5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강생 등 40명이 참석했으며 총 26명이 수료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함평읍 소재지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주민공동체 운영관리 및 실천방안, 도시재생사업 운영과정 등을 교육했다. 특히 팀별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현재 군에서 용역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평=윤예중 기자



### 장성신협 장학금 100만원 기탁

장성의 인재육성에 장성신협동조합도 동참한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신협동조합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성신협은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장성신협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청옥 이사장은 "장성에서 성장한 금융기업임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전일용 기자